

그때 그 시절 아기의 먹거리

나에게 엄마 젖을 다오!

사실 동물들은 스스로 먹거리를 해결하기 전까지 “모유”에 의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영악한 인간은 편리성을 쫓아 “소젖” 또는 “양젖”등을 착유하여 이용하였고 그나마 과학이 발달하자 이것을 더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찾아 “상품화”시켰다.

1930년대 착유기 SET



“70만 경성부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좋은 우유를 공급하는 밀크 프란트(우유 처리기)가 없는 것은 문화도시의 큰 수치라... 하로에 생산되는 우유 20석(3600kg)인데 이 밀크 프란트는 조선서 처음되는 사업이라” -1937년 대한신보 기사-

1937년 경성우유동업조합의 근대적인 유제품인 “병우유”가 나오기 시작한 후 1963년 “연유” 1965년에는 “분유”가 나오면서 육아의 제일 큰 몫인 먹거리는 엄마 가슴을 떠나 깡통식품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초기 상품화된 우유병 |

“개발의 시대 60년대”

깡통식품 먹는 것이 “문화인”으로 인식되는 시기였다.

국민학교 소풍간 날 부잣집 애가 소풍가방에서 미국산 “델몬트 파인애플”을 꺼낼 때면 혹시나 국물이라도 즐까 싶어 침을 흘렸고

해마다 깡통분유회사가 주최하는 “우량아 선발대회”가 있어 지금으로 치면 비만유아를 선발, 포상하는 그들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 우리는 우량아 = 건강한 아이 = 깡통분유로 하는 등식이 성립되어 그 결과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내 자식에겐만은 품위있는 깡통분유를 사서 먹었던 것이다.



연유 제품(1960년대) |

필자 부부 역시 자기 전 분유를 탄 젓꼭지가 달린 플라스틱 우유병 2개를 잠을 깨우는 아이에게 상시 대기 시켰고 집사람은 젓이 통통붓는 것이 “출산 후유증”이라면서 투덜거렸다.

편리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상품 등장으로 엄마와 아기간의 스킨십인 애기업는 “포데기”가 사라지고 알루미늄 파이프로 만든 지게가 그리고 차양막이 있는 유모차가 엄마의 등을 대신하게 되었다.

“보존의 시대”에 살아갈 이들은 지금 현재 말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 이들의 인권이 제일 가까운 이에 의해 침해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울음으로...

